

미래의 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과제와 해법

2015. 5. 15

원장 김도훈
산업연구원

차 례

I

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책

II

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필요성

III

미래 성장동력 모색 과정에서의 애로요인

IV

미래 성장동력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

1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

❖ 역대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책

- 국민의 정부: 2001년 8월, 「차세대 성장산업 육성」 방향 발표
- 참여정부: 2003년 8월, 「10대 성장동력산업」 제시
- 이명박 정부: 2009년 1월, 「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」 발표

❖ 반도체, 이동통신기기 등의 정보통신산업 (IT산업) 외에는 뚜렷한 성과 없는 것으로 평가

- 민간 기업들은 별도의 신수종사업 추진 노력 전개

❖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'창조경제' 제창

-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: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치
- 다른 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13개 미래성장동력, 산업통상자원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제안

2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양면적 시각

❖ 한편으로는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유효성에 의문 제기

- 과거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다수는 이미 대기업 주도로 민간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
- 혹은 특정 소수기업의 사업영역에 해당하여 육성정책의 과실이 소수 기업에게 편중되었다는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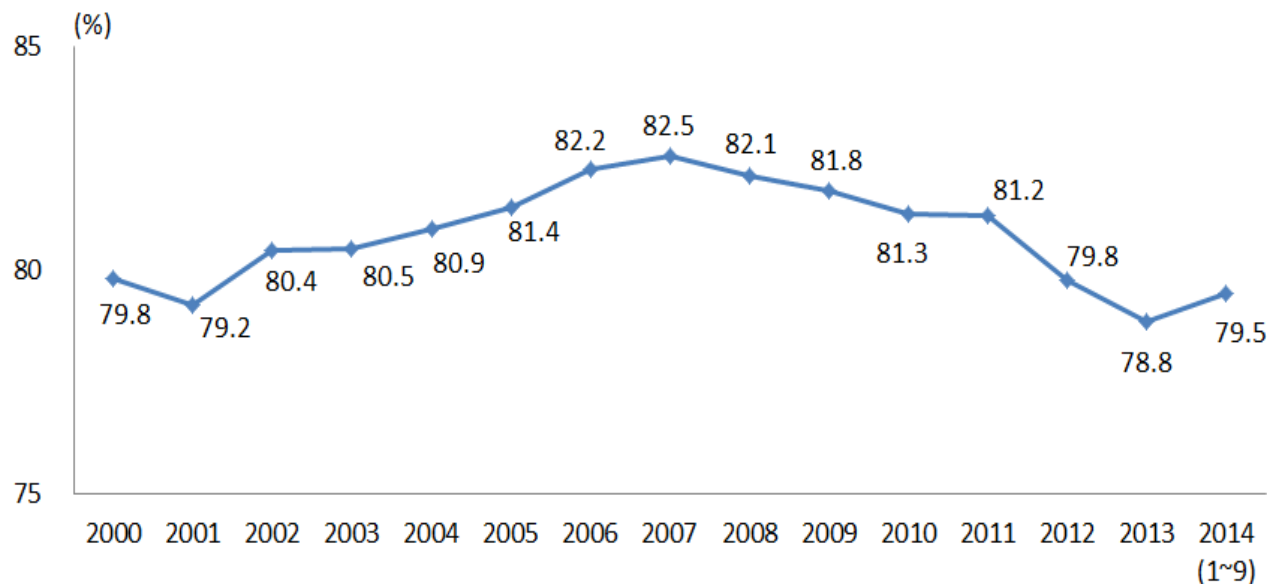
❖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부가 이른바 ‘미래 먹거리’를 발굴·육성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존재

- 과거 D램 반도체(1980년대), 자동차(1990년대), LCD패널 및 이차전지, 4G 이동통신(2000년대) 등의 경우 과거 산업육성정책이나 신성장동력 정책에 의한 집중적 정책지원에 힘입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

1 주력산업에서의 위기 징후

- ❖ ‘산업강국’으로서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,
- ❖ 샤오미의 충격 + ‘신샌드위치론’ 제기
 - 주력산업의 전반적 비중 하락

총수출에서 12대 주력산업의 비중 변화



자료 : KITA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

2 다른 나라들의 동향

1 중국의 신성장산업 육성전략

- ❖ 중국은 기존 주력산업에서 우리 산업의 지위를 추격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산업에서도 정책적 노력 경주
 - 2011년 12차 계획에서 「7대 전략적 신흥산업」 선정
 - 2015년 3월에는 「中國제조 2025」 10개년계획에서 10대 산업 육성 발표
- ❖ 민간기업들의 빠른 성장: 알리바바, 샤오미 등

2 일본의 신성장전략과 민간 기업들의 사례

❖ 2014년 6월 「일본 재흥전략 - 미래에의 도전 -」 : 건강수명, 클린에너지, 건강/편리, 농업/식품, 관광 등의 분야를 미래 유망 분야로 제시

- 「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」 에서도 클린에너지 (풍력, 태양광발전 등), 차세대 인프라 (ITS 등), 이차전지, 로봇 등을 제시
- 예시적 (indicative) 성격

❖ 일본 기업들의 변신에 주목할 필요

- 후지필름: 특정 3대 의약품 (암, 인지증, 감염증), 화장품, 재생의료 (iPS)
- 도시바: 헬스케어 (의료기기용 센서), 차세대에너지 (수소), 발전설비 (화력, 지열)
- 도요타: 수소 연료전지차 (특허 무상공개)
- 일본전산(NEC): 차재용 모터
- 파나소닉: 자동차 관련 (전기차용 배터리, 전장품, 차재기기..), 주택 (스마트시티, 배선장치) 분야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 (매출액 목표 : 2.5조엔(2014년) → 4조엔(2019년))

3 미국 기업의 새로운 트렌드

❖ 미국은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변신/혁신 노력 지속

❖ GE가 제시한 신기술분야 (Next List)

- 극한기계: 혹독한 외부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발휘하는 기계
- 슈퍼 소재: 가볍고도 뛰어난 성능의 신소재
- 산업인터넷: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계-사람, 기계-기계 간 소통을 통한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지원
- 스마트 공장: 산업인터넷을 활용하여 제조 전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지능형 시스템 (클라우드 기반, 첨단제조)
- 전천후 에너지: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
- 마인드 매핑: 뇌를 이해하여 뇌 관련 각종질환을 극복

4 독일의 인더스트리 4.0

❖ 독일의 경우는 자국이 강한 제조업과 ICT산업을 결합하여 강한 제조업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「인더스트리 4.0」이라는 이름 하에 표명

-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 추구
- 소재, 제품, 생산설비 모두를 지능화
- 제품이 스스로 생산 및 이동 경로를 선택하는 공정 시스템 도입을 추구

1 산업생태계 형성이 어려운 특유의 기업구조

❖ M&A 시장의 작동이 어려운 구조

❖ 매수자의 부재: 창업한 기업을 사들여 그 자체로 큰 산업으로 키워나가거나 혹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산업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수자 [구글, 애플 등]

- IT 1세대 기업들: 제조업형 기업을 사들이기에는 역량 부족
- 기존 대기업: 이미지 및 과거 행태가 발목

❖ 창업기업, 중소기업 등의 자세도 문제

- 자신들이 이룬 사업에 대한 강한 소유 의지

❖ 협업의 기피가 큰 걸림돌

2 벤처 육성정책의 명암

❖ 2000년대 벤처붐의 한계

- 세계적인 벤처 붐에 편승
- 신산업의 출현 시기에 나타나는 근시안적 투자 과열 현상?
- 혁신성을 지닌 벤처기업의 대거 출현에 기여

❖ 벤처를 지원하는 엔젤투자가,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공적자금이 민간자금을 구축하거나, 유인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

-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 참여가 부족하다는 등도 문제

3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서비스의 가능성

❖ ‘경제의 서비스화’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,

-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의 등장은 더딘 가운데, 이른바 ‘생계형 창업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계

❖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규제가 큰 장벽

- 서비스에 대한 저가 추구
-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추구
- 영세하다는 인식에 묶인 서비스
- 국내용이라는 인식에 묶인 서비스

4 기술개발 중심 vs 소비자 욕구 부응

❖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이미지: '고도기술산업 혹은 첨단기술산업'

- 5T, 6T 등의 미래기술의 중요성 강조
- 새로운 산업은 기술개발과 연계된 것으로 인식

❖ 세계적인 추세는 다른 방향

- 공유경제를 강조하는 우버, 에어비엔비
- 중국의 알리바바, 샤오미 등

❖ 현 정부의 창조경제: 기술개발 + 새로운 아이디어 강조

❖ 향후 새로운 산업을 키워나갈 때 소비자 욕구의 변화를 내다보는 노력이 필요

- 개인별 다양한 취향에 대한 대응 요구(Personalized)
-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인 생활에 대한 요구(Ubiquitous & Efficient)
-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요구(Safe and Healthy)

- ❖ 첫째,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의 대타협이 필요
- ❖ 둘째, 지금까지 비판받아 온 대기업들의 기존 행태의 (창업기업 흡수, 기술 탈취 등의 행태)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대기업들이 창업기업들을 M&A하는 길을 열어주는 길을 모색할 필요
- ❖ 셋째, 기술개발을 넘어서서 미래 사회의 정치, 경제, 사회적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미래 소비자의 욕구를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
 - 가칭 '미래사회비전회의' 운용



감사합니다